

Defi App <> Whitepaper

2024.12.23

1. 초록

탈중앙화 금융(DeFi) 생태계는 기능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단편적이고 복잡한 상태이며, 이는 해당 생태계의 도입에 있어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단순히 기본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도 복수의 지갑을 사용해야 하며, 다양한 체인에서 가스비를 관리하고, 복잡한 브릿징 메커니즘(bridging mechanisms)을 이해해야 합니다.

디파이앱(Defi App)은 진정한 탈중앙화를 유지하면서도 중앙화 거래소의 단순성을 실현하는 통합된 비수탁형(non-custodial)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디파이앱의 본질은 매끄러운 사용자 경험의 구현을 위해 EVM 및 비EVM 체인상의 혁신적인 계정 추상화 기술을 지능형 크로스체인 라우팅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EVM체인을 대상으로 한 [ZeroDev](#)연동과 솔라나(Solana)에 대한 [Dynamic](#)의 Turnkey 적용을 통해 사용자들은 전통적인 지갑 관리에 따르는 복잡성 없이 단일 패스키(passkey)로 복수의 체인 상호작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베타 버전으로 운영중인 디파이앱은 아비트럼(Arbitrum), 베이스(Base), BNB 체인(BNB Chain), 이더리움 메인넷(Ethereum Mainnet), 솔라나(Solana) 등 다수의 주요 네트워크에서 자체적인 접근법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의 아키텍처는 가스비 관리와 크로스체인 브릿징(cross-chain bridging) 등, 복잡한 활동들을 추상화하여 사용자들이 기술 구현 관련 세부 사항에 신경 쓰는 대신 자신의 거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HOME 토큰의 도입은 커뮤니티 거버넌스와 프로토콜의 개발 방향성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생태계를 보다 발전시킬 것입니다. 디파이앱은 토큰 기반의 투표권과 사용자 경험 포인트(XP)의 결합을 통해 활발한 플랫폼 내 참여와 거버넌스 영향력이 서로 연계되도록 합니다.

2. 디파이앱: 개요

블록체인 기술의 빠른 진화는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보안(Security), 그리고 확장성(Scalability)이라는 블록체인 트릴레마의 서로 다른 요소에 각각 최적화된 레이어 1 및 레이어 2 네트워크의 확산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확산은 탈중앙화 금융의 역량을 급격하게 성장시켰으나 사용자 경험의 심각한 단편화를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단편화는 DeFi의 대중적 확산을 가로막는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됩니다.

현재 DeFi 분야의 주요 과제

체인별 지갑 관리

사용자들은 각 블록체인 생태계별로 자체적인 보안 모델 및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춘 지갑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복수의 개인 키(private key)와 지갑 인터페이스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은 인지 부하와 보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EVM호환 체인들은 같은 지갑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을 지 몰라도 솔라나와 같은 비 EVM 체인들은 아예 다른 지갑 시스템의 구현을 필요로 하며, 이는 사용자 경험을 보다 복잡하게 만듭니다.

크로스체인 운영의 복잡성

사용자들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자산 전송을 위해 각각의 고유한 보안 가정(security assumptions) 및 운영 요건과 함께 여러 복잡한 브릿징 메커니즘(bridging mechanism)을 이해해야 합니다. 종종 사용자들은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에서 복수의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복수의 네트워크에서 가스 가격을 모니터링하며, 가스비를 위해 각 체인별 기본 토큰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사용자 에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가스 관리 관련 장애물

트랜잭션 수수료 지불을 위해 여러 네트워크에서 네이티브 토큰을 보유해야 한다는 사실은 사용자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각 블록체인은 자체적인 가스 토큰을 필요로 하며, 사용자들이 단순히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할 때조차 복수의 네트워크에 잔액을 유지하거나 복잡한 스왑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을 처음 사용하기 전 먼저 네이티브 토큰을 확보해야 하는 신규 사용자들에게 특히 심각합니다.

CEX vs. DEX

현재 사용자들은 중앙화 거래소(centralized exchanges, CEX)가 제공하는 편의성과 탈중앙화 거래소(decentralized exchanges, DEX)가 제공하는 보안상의 이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끊임 없는 크로스체인 운영이 지원되나 사용자들이 자신의 자산에 대한 관리 권한을 양도해야 하며, 이는 잘 알려진 여러 거래소의 실패 사례에서 보이듯이 거래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을 발생시킵니다. 이와 반대로 탈중앙화 거래소의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수탁권을 유지할 수 있으나 제공되는 인터페이스가 종종 단편적이고 복잡하며, 그를 수월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기술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시장 내 기회

DeFi 생태계 내 이러한 단편화는 CEX의 편의성과 DEX의 보안성 간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솔루션들에게 명확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중앙화 플랫폼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끊임 없는 경험을 저해하지 않는 비수탁형(non-custodial) 솔루션에 대해 갈수록 많은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진정한 탈중앙화를 유지하면서도 크로스체인 운영의 복잡성을 추상화할 수 있는 통일된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합니다.

왜 지금인가? 진화하고 있는 계정 추상화

최근 계정 추상화 기술의 진보는 이러한 생태계 내 도전 과제를 해결할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실제 운영이 가능한 EVM 및 비EVM 체인을 위한 계정 추상화 솔루션의 출현으로 지갑 관리 및 트랜잭션 서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화는 발전된 크로스체인 메시징 프로토콜 및 강력한 DEX 애그리게이터와 결합하여 탈중앙화나 보안 원칙에 대한 타협 없이 진정으로 통합된 DeFi 경험의 구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EVM 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정 기술 구현과 솔라나를 위한 임베디드 지갑(embedded wallet) 솔루션은 이제 정교한 트랜잭션 검증 로직, 가스리스(gasless) 트랜잭션, 그리고 통합된 인증 방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탈중앙화 시스템의 근본적인 이점을 유지하면서도 중앙화 거래소에 필적하는 사용자 경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 핵심 철학

디파이앱은 개발 및 도입의 모든 부분을 결정하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1. 디자인 원칙

- **UX 중심:** 프로토콜 및 기술 구현의 복잡성이 사용자의 상호작용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 **진정한 탈중앙화:** 비수탁형(non-custodial) 아키텍처는 사용자들이 중앙화 시스템 수준의 편의를 누리면서도 자신의 자산에 대해 완전한 제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체인에 종속되지 않는 아키텍처:** 플랫폼은 지원하는 모든 체인을 평등한 시민으로 취급하며, 기반 기술과 관계없이 일관적인 상호작용 패턴을 제공합니다.
- **끊임 없는(seamless) 통합:** 크로스체인 운영, 가스 관리, 그리고 프로토콜 상호작용은 사용자로부터 추상화되며, 동시에 완전한 투명성이 유지됩니다

2. 보안 중심의 방법론

해당 플랫폼은 모든 계층에서 견고한 보안 조치를 이행하면서도 접근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패스키 인증과 결합된 계정 추상화는 사용자 경험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기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3. 접근성

디파이앱은 기존의 진입 장벽을 없애면서도 탈중앙화 시스템의 핵심적인 장점을 유지함으로써 DeFi의 대중적 도입에 있어 주 인터페이스가 되고자 합니다.

4. 아키텍처

네트워크 지원 (런칭 시점)

EVM 네트워크

- 아비트럼(Arbitrum)
- 베이스(Base)
- BNB 체인(BNB Chain)
- 이더리움 메인넷(Ethereum Mainnet)

비 EVM 네트워크

- 솔라나(Solana)

네트워크 확장

우리의 네트워크 선정에 있어 우선이 되는 기준은 높은 유동성, 견고한 인프라, 그리고 확립된 보안 체계입니다. 이러한 확장 로드맵은 발전된 DeFi 생태계와 상용 수준의 계정 추상화 기능을 갖춘 체인들을 중점으로 합니다.

\$HOME 토큰 보유자들은 거버넌스 제안과 투표를 통해 향후에 있을 네트워크 확장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론트엔드 구현

- GitHub 조직 저장소에 호스팅된 React SDK
- AWS 인프라
 - 서버 로드를 위한 EC2
 - 스토리지를 위한 S3
 - 캐싱(caching)을 위한 Redis
- CI/CD 파이프라인은 Vercel을 통해 관리

계정 추상화

디파이앱의 계정 추상화 구현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르지만 보완적인 접근법을 통해 EVM 및 비 EVM 체인 모두에서 통일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솔라나의 경우 Turnkey 기반의 임베디드 지갑 기술이 활용되는 반면, EVM 체인은 ZeroDev를 통한 스마트 계정 아키텍처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중 구현은 각 체인별 보안 강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끊임 없는 크로스체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임베디드 지갑 구현 (Solana)

솔라나 구현에서는 개인키 관리를 위해 Turnkey의 안전한 인프라가 활용됩니다. 사용자는 트랜잭션을 시작할 때 자신의 패스키를 사용해 인증하며, 이 동작으로 인해 Turnkey는 체인 전송 전, 먼저 저장된 프라이빗키를 통해 해당 트랜잭션에 서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는 기본 키(**underlying key**)의 보안을 유지하는 동시에 반복되는 트랜잭션을 위해 세션 키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스마트 계정 구현 (EVM)

EVM 체인의 경우 우리는 온체인에서 검증 로직을 처리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계정을 활용합니다. 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패스키 서명과 스마트 컨트랙트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기존 EOA의 한계가 사라집니다. 스마트 계정 아키텍처는 트랜잭션 자체에서 정교한 트랜잭션 검증 및 세션 키 관리의 직접적인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향상된 보안성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통합 계정 관리

이러한 개별적인 구현 방식들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차원에서 하나의 일관된 경험으로 수렴됩니다. 사용자들은 단일 패스키 인증 시스템을 통해 지원되는 모든 체인과 상호작용하며, 그 동안 플랫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유형의 계정을 관리하는 데 따르는 복잡성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 방식은 **Dynamic**을 통한 소셜 로그인 지원에도 적용되며, 이는 두 가지 구현 방법의 보안적 이점이 모두 유지되는 끊임 없는 온보딩 경험을 제공합니다.

출시 시점 기준으로 현재 우리는 아래와 같은 소셜 로그인 커백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Google	X	Facebook
Discord	Android	iOS

라우팅 아키텍처

라우팅 아키텍처는 끊임 없는 크로스체인 활동의 제공을 위해 여러 특화된 프로토콜을 결합하는 동시에 사용자가 복잡성을 느끼지 않도록 추상화합니다. 각 구성 요소는 트랜잭션의 흐름 내에서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체인 간 자산의 이동을 위한 견고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프로토콜 통합 계층

우리의 주요 통합 기술 스택은 동일 체인 스왑(**same-chain swap**) 및 수수료 스왑(**fee swap**)을 위한 [1inch](#), 폴백 라우팅 솔루션(**fallback routing solution**)을 담당하는 [LiFi](#), 크로스체인 브릿징을 위한 [DeBridge](#), 그리고 솔라나 네이티브 스왑을 위한 [Jupiter](#)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다중 프로토콜 접근 방식은 지원되는 모든 체인에서 최적의 라우팅과 비용 효율성 달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스 추상화 구현

가스 추상화는 각 체인 생태계마다 그 고유한 강점을 활용하는 방식이 상이하나 사용자 경험은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EVM 체인의 경우 **ZeroDev**의 페이마스터(**paymaster**) 네트워크가 가스비 대납(**gas sponsorship**)을 처리하며, **1inch**는 수수료 스왑 수행을 관리합니다. 또한 필요시 해당 시스템은 **LiFi**의 라우팅 솔루션으로 폴백(**fallback**) 할 수 있습니다.

솔라나 구현에서는 자동 가스비 대납을 위해 다중서명(**multisig**) 지갑을 통한 커스텀 페이마스터가 활용됩니다.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동안 시스템은 아토믹 수수료 스왑을 수행하고, 솔라나 생태계 내 최적의 라우팅을 위해 **Jupiter**를 활용합니다.

트랜잭션 흐름

크로스체인 활동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의 기본 단계를 따릅니다:

1. 가스비 확보 필요시 **1inch**를 통해 초기 수수료 스왑 실행
2. **DeSwap** 인프라를 통한 크로스체인 브릿징
3. 체인별 수행 방식:
 1. **EVM** 체인의 경우 가스비 관리에 **ZeroDev**를 활용
 2. 솔라나의 경우 **Jupiter** 와 연동된 커스텀 페이마스터 활용

해당 시스템은 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LiFi**를 통한 대체 라우팅 경로, 중복 브릿지 경로 및 정교한 가스비 최적화 전략 등을 포함한 복수의 폴백(**fallback**) 메커니즘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계층적 접근 방식은 비용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트랜잭션이 완료되도록 보장합니다.

프로토콜 통합

- DEX 애그리게이션
- 브릿지 구현
- 크로스체인 스왑 최적화

5. 보안 아키텍처

인증

Dynamic은 지원되는 모든 체인을 대상으로 복합적인 계정 관리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안전한 계정 관리를 위해 이메일 패스키 인증이나 **Oauth2** 소셜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해 활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추가적인 보안을 위해 사용자는 인증 앱과 일회용 백업 코드를 통한 2단계 인증(**two-factor authentication, 2FA**)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디파이앱의 인프라는 아래를 통한 철저한 보안 평가를 거칩니다:

- **AWS**
 - [Sela](#)의 우수한 아키텍처 리뷰 (Well-Architected Review)
 - [Halborn](#)의 환경 침투 테스트 (Environment penetration testing)
- **GitHub**

- Halborn의 저장소 보안 최적화
- Halborn의 환경 침투 테스트
- **DdoS** 보호 + 악성 트래픽 차단
 - CloudFlare
 - Vercel Firewall

리스크 모니터링

[CUBE3.AI](#) 연동은 복합적인 보안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 **AML** 규정 준수 모니터링
- 트랜잭션 모니터링 및 리스크 평가
- 토큰 및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모니터링
- 스캠 토큰 및 러그풀(rug pull) 탐지

이러한 다중 계층의 보안 전략은 철저한 보호를 보장하는 한편 사용자를 위한 끊임 없는 운영 기능을 유지합니다.

6. 사용자 경험

계정 생성 및 관리

해당 플랫폼은 계정 생성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공하여 다양한 기술적 배경을 가진 사용자들을 지원합니다. 사용자들은 이메일 인증을 통해 가입하거나, **Oauth2** 기반의 소셜 인증 제공자(구글, X, 페이스북, 디스코드)를 통해 접속하거나, 호환되는 **Web3** 지갑을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계정 생성 즉시 사용자는 자신의 계정에 자동으로 연결된 **EVM** 및 솔라나 기본 지갑을 수령합니다. 본 플랫폼은 외부 지갑의 통합 관리를 지원하므로 사용자들은 추가적인 지갑을 연결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각 체인별 활성 지갑을 원활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트랜잭션에는 항상 활성 지갑만이 사용됩니다.

자산관리는 전적으로 온체인에서 수행되며, 펀딩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기 위해 현재 통합된 온램프(onramp) 지원이 개발 중입니다.

토큰 컨트랙트

디파이앱은 토큰 지원을 위해 [CoinGecko](#)의 종합적인 시장 데이터와 [Codex](#)의 신흥 토큰 관련 정보를 결합한 이중 제공자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방식은 이미 시장에 자리잡은 토큰과 새롭게 출시된 토큰 모두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가격 발견(price discovery) 및 거래 기능을 보장합니다.

CoinGecko는 일차적인 데이터 제공자로서 이미 시장에 자리잡은 토큰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탄탄한 시장 데이터 및 통계 자료와 함께 제공하며, Codex는 거래 페어(trading pairs)에 유동성이 공급될 때 활성화되는 자체적인 자동 등록 시스템을 통해 신흥 토큰이나 아직 CoinGecko에 등록되지 않은 토큰을 즉각적으로 지원합니다.

크로스체인 거래 인터페이스

해당 거래 인터페이스는 크로스체인 작업의 복잡성을 추상화하여 손쉬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반 네트워크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익숙하고 직관적인 경험을 선보입니다. 가스비, 브릿지 운영, 토큰 승인 등은 자동으로 처리되며,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기술 구현에 대한 상세 사항 대신 자신의 거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및 웹 접근성

본 플랫폼은 모바일과 데스크탑 인터페이스에서 일관된 기능성 및 보안성을 유지하며, 이를 통해 유저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기기에 관계없이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형 디자인은 다양한 화면 크기에 맞게 조정되는 동시에 완전한 기능 패리티를 유지합니다.

7. 프로토콜 경제 구조 및 거버넌스

디파이앱은 여러 보완적 수익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일차적 수익은 크로스체인 작업에 대한 거래 수수료를 통해 창출되며, 수익을 최적화 서비스와 자동 유동성 공급을 통해 수익이 보완됩니다. 추가적인 잠재 수입원에는 전략적인 프로토콜 파트너십과 프로젝트 런치패드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HOME 토큰

디파이앱의 네이티브 토큰인 **\$HOME**은 프로토콜 거버넌스 내 직접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플랫폼 내 참여도와 의사결정 권한이 일관되도록 조정합니다. 본 토큰의 유틸리티 프레임워크는 여러 가지의 잠재적인 개발 경로를 포괄합니다:

- **프로토콜 개발:** 토큰 보유자들은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 어떤 프로토콜을 부각시키고 우선순위로 취급할 지에 대하여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 **기능 구현:** 자동화된 거래 경로("zap" 기능) 등, 플랫폼 기능 개발에 대한 영향력 행사
- **스테이킹 메커니즘:** 스테이킹 기능과 그에 따른 거버넌스 혜택 간의 잠재적 연동
- **프로토콜 설정값:** 프로토콜 구성 및 연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향후 유틸리티 확장은 거버넌스 제안을 통해 이행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커뮤니티 주도의 프로토콜 발전이 보장됩니다.

거버넌스 전략

이행

본 프로토콜은 [Snapshot](#)을 통한 온체인 투표를 구현합니다.

전략

디파이앱은 사용자의 **\$HOME**을 계산하고 프로토콜 강화 행위를 통해 획득한 **XP**로 그들의 투표력(voting power)을 보완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합니다.

$$VP = HOME + \alpha(XP)$$

이는 아래와 같이 설명되며,

- **VP**: 투표력(Voting Power)
- **HOME**: 크로스체인 ERC20 **\$HOME** 토큰 잔액 ([erc20-balance-of](#) 를 통해 조회)
- **XP**: 프로토콜 참여를 통해 축적한 사용자 경험 포인트(User Experience Points) ([api-v2](#)를 통해 조회)
- **α** : XP 기여도를 위한 조정 계수(coefficient multiplier)

해당 구현 방식은 위 요소들을 아래와 같이 조합합니다:

1. Snapshot의 내장된 [erc20-balance-of](#) 전략을 활용해 사용자의 **\$HOME** 잔액 조회
2. 해당 사용자의 **XP** 점수를 불러오기 위해 우리의 데이터베이스에 동시 **API** 호출 수행
3. **XP**값에 조정 계수 적용
4. 두 요소를 합산하여 최종 투표 가중치(vote weight) 계산

이러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접근법은 토큰의 보유 및 플랫폼 내 활발한 활동이 모두 거버넌스 가중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적인 프로토콜 참여를 장려하는 동시에 분산된 통제권을 유지합니다.

거버넌스 범위

프로토콜 거버넌스는 아래 내용을 포괄합니다:

1. 경제적 설정값(parameter) 조정
2. 기능의 우선순위 설정 및 구현
3. 프로토콜 통합 및 파트너십
4. 수익 배분 모델
5. 네트워크 확장에 대한 결정

제안 생애주기

커뮤니티 내 논의 및 제안의 수정 및 개선은 통합된 [snapshot.box](#) 플랫폼을 통해 진행됩니다. 표준화된 거버넌스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커뮤니티 논의 기간
2. 공식적인 제안 제출
3. 검토 및 피드백 단계
4. 온체인 투표 기간
5. 승인된 제안의 이행

8. 로드맵

현황

디파이앱은 **2024년 12월 19일** 베타 버전 [출시](#)를 통해 통합 계정 추상화와 끊임 없는 크로스체인 운영의 핵심적인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초기 유저 그룹은 진정한 탈중앙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복잡성을 추상화해 손쉬운 활용을 가능케 하는 해당 플랫폼의 기능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출시 단계

본 플랫폼의 단계적 배포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 **1단계:** 선정된 사용자 그룹에 대한 베타 액세스 확장(**Q4 2024**)
- **2단계:** 대중을 상대로 한 출시 및 기능 확장(**Q1 2025**)
- **3단계:** \$HOME 토큰 생성 이벤트 및 거버넌스 출시(**Q1 2025**)

기능 개발 파이프라인

플랫폼의 발전은 몇 가지 주요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거래 기능

- 고급 주문 유형 (Advanced order type) 구현
- 무기한 선물 계약 및 레버리지 거래
- AI기반의 거래 에이전트 연동
- 자동화된 수익 파밍(yield farming) 전략

사용자 경험

- 모바일 우선의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 법정화폐 온램프 기능 통합
- XP 리워드를 통한 게임 기반의 참여 시스템
- 일일/월별 퀘스트 프레임워크

해당 개발 로드맵은 유동적으로 운영되며, 기능 우선순위 설정 및 구현 일정은 **\$HOME** 토큰의 투표 메커니즘을 통한 커뮤니티 거버넌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